“끓이면 안전” 닭·오리 소비 회복세

유통업계·식당가 타격적어 ‘안도’

“철저한 방역 … 하루빨리 마무리를”

인체에 전염되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파동에도 불구, “끓여먹으면 괜찮다”는 지난 2003년 ‘학습효과’로 인해 발생 초기 급감했던 닭·오리 관련 상품의 소비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농가와 식당가 등도 예년과 달리 단기간 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정부가 철저한 방역으로 이번 파동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줄 것을 바라고 있다.

28일 대형 마트 등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조류독감이 전북 익산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60%까지 급감했던 생닭과 계란, 닭꼬치 및 닭강정 등 닭 관련 상품의 매출이 이번 주 들어서는 평소보다 10~20% 감소한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23일 조류독감 진원지인 익산의 닭 매장을 철수하는 대신 충북제품으로 대체했는데도 24일부터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해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밝혀진 26일에는 파동 이전보다 매출이 60%나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조류독감을 경험한 소비자들 사이에 “섭씨 75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할 때는 감염위험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7일부터 소비가 되살아나는 등 평소보다 10% 매출이 줄어드는데 그치고 있다.

나머지 광주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의 닭고기 관련 매출도 조류독감 발생 직후 40~50%까지 줄어들었으나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이번 주 들어 닭고기 매출 감소세가 15% 수준까지 올라왔고 홈플러스 동광주점과 롯데마트는 20%, 빅마트는 30% 감소하는데 그치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2003년 당시 조류독감 파동으로 치킨집까지 큰 타격을 본 것에 비하면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며 “아마 끓여 먹으면 괜찮다는 학습효과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최대의 닭·오리고기 생산업체인 나주 ‘화인코리아’의 경우 품목별로 10~20% 매출이 줄고 25~27일 1억1천만원의 손실을 입었으나,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하며 생산라인을 정상가동하고 있다. 회사 측은 또 수출이 중단된 원료육 대신 삼계탕 등 가열제품으로 수출선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의 명물 ‘오리요리의 거리’(북구 중흥 1동 현대백화점~유동 사거리 300m 구간)에 있는 식당 17곳의 경우도 정부 발표 후 한때 손님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나,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직장동료와 함께 28일 ‘영양오리탕’을 찾은 오정묵(47)씨는 “익혀 먹으면 괜찮다고 해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조류독감에 죽은 사람도 없지 않느냐?”고 되레 반문했다.

‘풍년오리탕’ 최복실(여·60)씨는 “지난 예로 볼 때 한번 파동이 일면 농가들이 상당기간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것을 꺼려하면서 물량이 딸려 공급 가격이 치솟게 되는 반면 음식값을 올릴 수 없어 타격이 크다”며 “정부가 철저한 방역을 실시, 하루빨리 이번 사태를 마무리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전남 최대의 닭·오리 생산업체인 나주 ‘화인코리아’ 직원들이 28일 ‘삼계탕’을 포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조류독감 파동에도 불구, 최근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자 생산라인을 정상가동하고 있다. /나주=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원참 〈6988〉 김종두

‘오월의 아이’ 조천호씨 결혼에

경북 학생들 축하 편지·축의금

‘오월의 아이’ 조천호(31·광주시 총무과)씨가 결혼식〈본보 11월23일 7면〉을 올린 직후 영남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조씨에게 축하편지와 축의금을 보내와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광주시청 총무과에는 경북 영주시 영주초등학교 2학년4반 담임 박재수 교사와 학생 등 33명의 편지와 축의금이 등기우편으로 전달됐다.

이들의 편지는 80년 5월 당시 금남로에 나섰다 진압군의 총탄에 아버지를 잃은 뒤, 5월의 아픔을 딛고 꿋꿋이 살아온 조천호씨가 자랑스럽고, 결혼을 축하한다는 내용이 가득했다.

어린이들의 편지와 축의금은 경북 태생이면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광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년 5·18 국립묘지를 찾고 있다는 박재수 교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어린이들은 인터넷과 신문을 보면서 1980년 5월 당시 5·18 묘역에서 아버지의 영정을 안고 있는 모습이 외신에 보도된 내용과 사진 등을 통해 조천호씨를 알게 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성항공 착륙 사고 6명 부상

광주~제주 항공기 3편 결항

28일 오후 4시15분께 제주공항에서 한성항공 205편이 활주로에 착륙하다 앞 바퀴가 부러져 튕겨나가면서 선수 동체가 활주로에 주저앉았다. 〈사진〉

이 사고로 기장 홍모(60)씨와 승객 박모(여·57)씨 등 모두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제주공항 동~서 활주로가 폐쇄되는 바람에 ▲광주→제주(대한항공·아시아나) ▲제주→광주행(대한항공) 3편의 항공기가 결항하는 등 밤 늦게까지 결항과 지연이 잇따랐다. 사고 항공기는 이날 오후 3시7분 김포공항을 이륙해 오후 4시30분에 제주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교총 ‘패스트푸드 안먹기’ 청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햄버거와 피자 등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의 포장이나 용기에 과다 섭취에 따른 건강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28일 입법 청원했다.

교총은 개정안 청원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원 등 50만6천567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국회 교육위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과 법사위 안상수(한나라당) 의원, 보건복지위 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의 청원 소개 의견서를 첨부해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교총은 생활실천 수칙으로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안 먹기·자기 혈압 알기·바른 식생활 습관 운동·아침 먹기 및 간식 줄이기·학교 걸어다니기 등 10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 관공서·학교 식당 식단표 살펴보니…

닭·오리 요리 메뉴 늘려 소비 홍보

‘닭강정’ ‘닭감자조림’ ‘계란야채말이’….

광주시청 등 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구내 식당에서 제공하는 닭과 오리 요리 메뉴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가에 조그마한 희망이 되고 있다. 끓여 먹으면 안전하다는 것도 널리 홍보하고 농가에도 실질적인 보탬을 주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청 구내식당은 28일 점심에 ‘삼계탕’으로 닭·오리 안전성 홍보를 위한 시식회를 했다.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는 홍보에 박광태 시장 등 1천여명의 직원들이 나서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시청 구내식당은 또 저녁 반찬으로 ‘닭강정’을 제공하고 29일 점심엔 ‘계란찜’을 내놓는다. 12월에도 ‘닭감자 조림’(1일 중식)·‘계란야채말이’(6일 석식)·‘닭가슴살겨자야채무침’(8일 석식)을 준비한다.

북구청 구내식당은 다음달 1일 ‘닭요리국’을 내놓고 동구청에선 다음주 중 닭요리를 내놓을 계획이다.

광주시내 각급 학교급식도 교육청의 조리 지침에 따라 계란말이·닭튀김 등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도로공사 현장 인부 숨져

28일 오전 9시30분께 영암군 학산면 음곡리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N건설 소속 박모(34)씨가 암석 분쇄기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kwangju.co.kr

고모집에서 귀금속·현금 털어

쌍나팔

○…보호관찰소에서 알게 된 수감자들과 함께 자신의 고모집을 턴 20대가 경찰에 덜미.

○…28일 광주 동부경찰에 상습절도 혐의로 붙잡힌 김모(20)씨 등 3명은 지난달 25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김씨의 고모(여·50) 집에서 귀금속과 현금(470여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빈 집을 돌며 5회에 걸쳐 5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6개월 전 광주보호관찰소에 수감 중 서로 알게 돼 함께 범행을 저질렀는데, 훔친 돈은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